



MLB 사무국 "9일까지 노사 합의안 나와야 162경기 정상 진행"

송고시간 I 2022-03-08 13:56











임순현 기자 기자페이지



닫혀 있는 양키스타디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구단 측과 선수노조가 단체협약(CBA) 개정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MLB 사무국이 정규시즌 정상 진행을 위한 '데드라인'을 9일로 정했다.

AP, 로이터 등 현지 매체들은 8일(한국시간) "MLB 사무국이 선수 노조에 '9일이 162경기와 온전한 급여·서비스 타임 (full salary and service time)이 허용되는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올 시즌 MLB는 구단과 선수노조의 합의가 미뤄지면서 이미 4월 1일 개막전을 포함한 팀당 6경기가 취소된 상황이다.



경기 수가 줄면서 선수들이 받을 수 있는 연봉도 상당 부분 삭감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MLB 사무국은 정규시즌 정상 진행을 위한 마지막 협상일을 9일로 다시 통보하면서 162경기 정상 개최 여지를 남겼다.

시즌 개막 연기가 확정된 상태에서 162경기를 어떻기 치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지 매 체들은 취소된 경기를 더불헤더 등으로 재편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핫뉴스 →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왕좌의 게임' 출연배우,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로체포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구단 측과 선수노조가 부유세(균등경쟁세)와 보너스풀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9일 협상에서 노사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구단들은 올해 부유세를 2억2천만 달러, 2026년까지 2억3천만 달러로 올리겠다고 제안했고, 선수 측은 올해 2억3천800만 달 러, 2026년까지 2억6천300만 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보너스 풀도 선수노조는 기존보다 500만 달러를 낮춘 8천만 달러를 요구했지만, 구단들은 이보다 5천만 달러나 적은 3천만 달러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9일 협상에서 구단 측과 선수노조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추가로 경기가 취소될 예정이다.

hyun@yna.co.kr



MLB, 투구 시간·수비 시프트 제한·베이스 크기 확대 도입 준비(종합)
MLB, '투구 시간제한 규정' 도입 준비...2023시즌부터 적용될 듯
5일 만에 재개된 MLB 노사협상도 '교착 상태'...8일 다시 협상
포수와 가수를 함께 꿈꾸는 마이너리그 '이도류' 유망주
MLB 사무국, 해외 출신 선수 뽑는 '국제 드래프트' 도입 추진
MLB 노사, 7일 협상 재개...PS 진출팀 안건으로 재협의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3/08 13:56 송고

#MLB #선수노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 02:22

[영상] 압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나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든 링컨 등 후보군"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마스크만 빼고...'사회적 거리두기' 2년1개월 만에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 화...美와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 149 찰에 고발

2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3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 61 대병원 자원봉사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 40 힐 예정"

뭐하고 놀까? ## 😛 →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

테미벌뉴스 핫뉴스 톰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강 영문연강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각.헤드라인 **광고** KTX.열차 AREX.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뉴스
 모바일앱
 모바일앱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حربی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메스 한민족센터 K결정기회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성기홍 [편집인]조채희

Yonhapne